

●'다문화가족 희망콘서트 With 정동하'
...내달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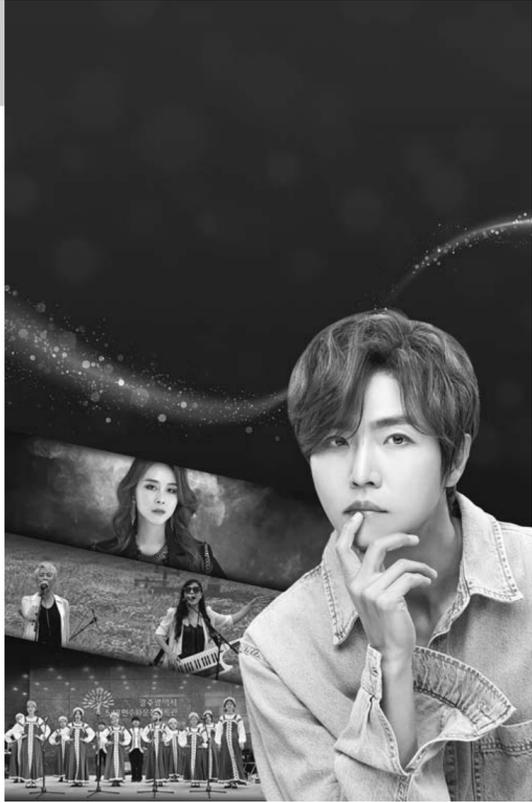
희망찬 새해 '선물' 같은 공연

을사년 새해 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콘서트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진이랑·킹스밴드 출연
'추억은 만남보다...' 등 다채로운 장르 무대 선사

'다문화가족 희망콘서트 With 정동하' 공연이 다음달 27일 오후 6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가 주최, 광주매일신문이 주관하며 광주지방검찰청이 후원한다.
공연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문화가족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와 협력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범시민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고려인마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합창 공연을 비롯해 가수 진이

랑의 신나는 트로트, 그룹 킹스밴드의 파워풀한 보컬 공연, 대한민국 대표 라이브 가수 정동하의 메인 무대까지 다채로운 라인업이 눈길을 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메인 가수로 나서는 정동하는 2005년 그룹 부활의 제9대 보컬로 데뷔한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까지 9년여 간 부활 멤버로 활동했으며, 2014년부터는 팀 탈퇴 후 솔로 가수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드라마 OST, 뮤지컬, 라디오 DJ 등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정동하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정동하의 대표곡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를 비롯해 드라마 '열혈사제' OST인 '파이터', 부활의 히트곡 '생각이 나' 등 감미로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광주매일신문 측은 "2025년 새해를 더욱 특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며 "이번 공연이 다문화가족 등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는 문화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권 구매 등 공연 문의는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로 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예술영화로 풍성한 명절 보내볼까

●광주극장 설 연휴 상영작

'애니멀 킹덤' 등 판타지부터 예술가 서사 담은 작품까지



'애니멀 킹덤' 스틸컷

광주극장이 을사년 새해 설 연휴를 맞아 다양한 나라의 예술영화로 스크린을 채운다.
먼저 22일 개봉한 '애니멀 킹덤'은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 때문에 주변 사람이 동물로 변한다는 신비로운 설정에서 출발한 미스터리 판타지 드라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문화 매거진 롤링 스톤이 선정한 '제76회 칸영화제 베스트10'에 이름을 올리며 화제적으로 등극했다.
같은 날 '카리바조의 그림자'도 개봉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이탈리아 3대 천재 화가로 꼽히는 '카리바조'의 명암을 다룬 영화다.
'라누치오'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아 도피 생활을 하게 된 '카리바조'의 실제 생애를 바탕으로 드라마틱한 서사를 구축했다.
설 명절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재즈 애니메이션 '그들은 피아노 연주자를 썼다'가 스크린에 걸린다.
아르헨티나 투어 도중 실종된 브라질의 천재 피아니스트 '데노리우 주니오르'를 찾아 나선 음악 기자 '제프 헤

리스'의 여정이 담겨있다.
영화 내내 흐르는 재즈 음악이 흥을 돋우는 한편, 테노리우를 회상하는 동료 뮤지션들의 말이 감동과 여운을 더한다.
이밖에도 파우 초이닝 도르지 감독의 부탄 영화 '총을 든 스님'과 오기미 미야오코 감독의 블랙코미디 신작 '파문', 데미 무어의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수상과 더불어 무서운 흥행기세를 보이는 '서브스틴스', 클레어 키건 작가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이처럼 사소한 것들', 24개국 비경에서 펼쳐지는 다섯 무법자의 환상적인 모험을 담은 '더 폴: 디렉터스 컷'도 설 연휴 기간 장기 상영된다.
상영작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시립극단 '위선자 타르튀프' 객원배우 공모

31일까지 접수...12명 선발

광주시립극단은 제24회 정기공연 '위선자 타르튀프'에 참여할 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연기자 12명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응시서류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gidrama@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다음달 4일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실시한다. 필수과목은 지정연기, 자유연기, 특기, 면접이다. 연습, 공연 일정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모집한다.
합격자는 다음달 7일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응시원서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한편 광주시립극단 정기공연 '위선자 타르튀프'는 시립극단 세계 명작 시리즈의 일환으로, 세계 최고의 희극작가 몰리에르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원광연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으며, 공연은 오는 4월24-28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총 5회 펼쳐질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허정 장안순 화백, 초대전 '武陵桃源'

(무릉도원)

내달 28일까지 순천 문화공간 다담
허정 장안순 화백의 '무릉도원' 초대전이 오는 2월28일까지 순천 문화공간 다담(순천시 행금길 14)에서 열린다.
지난 17일 개막식에는 김진남 전남도의회 의원, 나안수·이복남 순천시의회 의원 등 100여 명의 미술인과 시민이 참석해 전시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장화백은 개인전 26회, 부스 초대전 40회, 명동아트트리브즈 초대전 등 초대·단체전 500여를 열었다. 그는 국립 순

천대학교와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에서 강사를 역임한 바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제34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국내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그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전남도전 초대작가, 국제현대작가협회와 한·일현대미술회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순천=양홍렬 기자

장안순작 '무릉도원-팔마의꿈'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